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74 1981년7월24일(금)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July 24. 1981

KAL표 $80 더비싸

1일부터 CP항공요금이 유리

서울출발자만 해당, 고객상실 우려

서울서 캐나다로 오는 KAL(대한항공)의 항공요금이 오는 1일부터 약 150달러가 올라 CP(캐네디안-퍼시픽)를 이용할 때보다 80달러가 비싸졌다.

이에따라 캐나다교민이 친지들을 방문초청할 때보내주는 KAL항공료는 종전의 1,583(최저요금)달러에서 1,727(최저요금)달러로 올랐다.

최근 한국정부는 해외교포의 고국내 친척초청방문범위를 3촌까지로 넓히고 기타 상용, 학술, 시찰등 목적의 외국여행 문을 크게 개방, 많은 국내인들이 해외에 나오고 있어 항공료의 인상은 큰 영향을 준다. 초청인들은 대부분 피초청자의 항공표를 이곳 여행사에서 구입, 고국에 보내주기 때문에 교민들의 부담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인들이 서울왕복 KAL항공표를 국내에서 살때는 최저 2,166달러나 주어야한다.

CP는 지난 6월1 일부터 요금을 인상, 서울서 토론토 구간을 $978, 토론토서 서울까지는 $690. 도합 왕복에 1,668달러를 받고 있으므로 오는 1일부터는 KAL보다 싸게 된다.

한국 교통부는 이번 KAL요금인상은 미국계 항공사들이 지난 4월15일 요금을 올린데 뒤따른 조처라고 24일 발표했다. 교통부는 이 요금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요금보다 아직도 10% 가량 낮다고 말했다.

위에서 밝힌 KAL의 최저요금은 여행자가 귀로에 거치는 경유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이번의 요금인상은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교포모국방문자는 관계없다. 토론토에서 방문하는 경우 종전처럼 KAL왕복 1,290달러 CP왕복 1,360의 단체할인요금이 계속 적용된다.

KAL의 최저요금은 미주지역 방문자를 위한 특별요금(「Visit U.S.A or North America」)을. CP의 경우는 벵쿠버~토론토간의 특별요금을 적용한것이다.

타결전망 안보여

우편파업 1개월째 육박

오는 29일이면 만 1개월이 되는 캐나다우편피업은 골드 판사 중재하에 협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나 정부나 우편노조는 조금도 양보의 기색을 보이지 않아 조속한 타결전망은 안보이고 있다.

달러가치 최악상태

물가위해 고금리정책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캐나다 달러는 다시흔들려 48년만에 최악의 상태에빠졌다.

최근 북미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캐나다 1달러는 20일 미화 82.40센트, 21일에 약간 올라 82.53센트22일에는 다시 떨어져 82.24센트로 23일에는 82.18 센트로 거래, 1933년 81.3센트를 기록한 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달러가치하락에대한 심리적 충격을 고려,통화량을 더욱 긴축시켰다.

외환시장의 관측자들은 지난3월이래 가치가 떨어지는 캐나다 달러의 전망은 불투명 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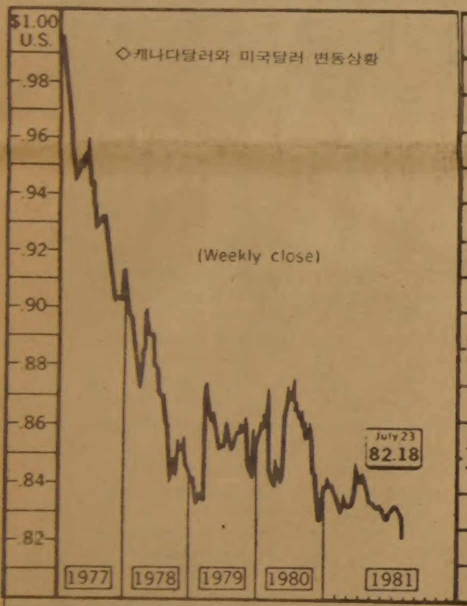
고금리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악영향을 주지만 통화팽창을 막아 인플레영향을 감소시키는데는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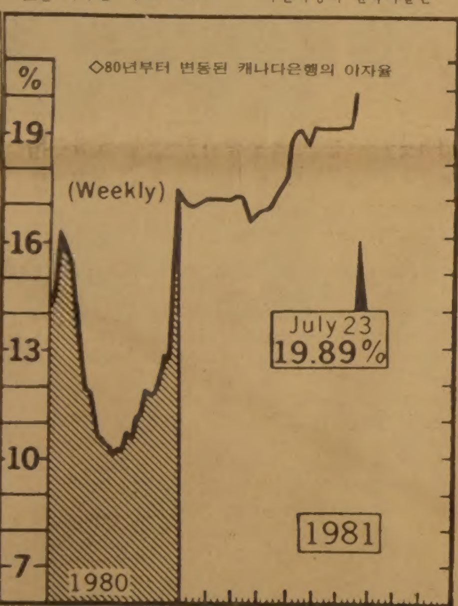
리건미국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한 긴축통화책의 일환으로 고금리정책을 쓰고있어 캐나다도이 추세를 따르고 있다.

캐나다의 단기예금 금리는 미국보다 약간 높으나 미국달러를 끌어 들이기는 부족하고,더구나 캐나다인플레이션은 점점악화,미국보다 2%이상 높은 12%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문에 미화의 캐나다대량유입이 일어나지않아 캐나다달러가치가 하락한다.

경제학자 엔거스·스마트씨는 캐나다 중앙은행의달러보호책을 믿지 말라면서 캐나다 달러가 미화80센트선으로 떨어질 가능성도있다고 내다봤다.

토론토 금융가의 최고예금 이자율은 16½%선이다.





◇월드·게임 I에 파견되는 태권도팀(※한국일보 16일자)이 23일밤 토론토쉐라톤·센터에서 결단식을 가졌다. 이 들은 24일부터 8월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라라에서 열리는 비올림픽종목 국제체전에서 캐나다를 대표한다. 60개국, 2천여선수가 참가하는 이대회 회장은 한국의 김운용세계태권도연맹회장이다. 캐나다올림픽 선수 유니폼을 입은 이들은 앞줄 왼쪽부터 2번째가 선수 다니엘·홍(혁기), 5번째가 박영호, 뒷줄 왼쪽에 감독 이태은, 5번째 부단장 홍성인, 코치 이종수, 오른쪽 끝이 단장 이병권씨.

한국「원」화 강세

수출에 역효과 초래

미국달러 가치의 강세에 편승한 한국「원」화의 평가절상은 외국 무역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한국상공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들어 5월까지 미국달러에 대비, 일본화폐는 10.1%, 서독「마르크」는 23.7%로 평가절하, 이에 따라 한국의 「원」은 일본「엔」에는 5.3%, 서독「마르크」에는 14.2%가 평가절상됐다.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절하됐다.

상공부 관리에 의하면한국「원」의 강세는 수출시장 확대를 방해, 수출대상국의 수입업자들은 약해진 자국통화 때문에 상품의 가격인하를 요구, 수입을 억제시킨다.

23일 현재 서울 외환은행에서 거래된 「원」은 미화 1달러당 683원80전, 대캐나다달러당 562원75전이었다.

토론토서 2명 추천

국군의 날에 교포 초청

토론토한국총영사관은오는 10월1일 서울서 열리는 「국군의 날」행사에 토론토지역 교민대표로 이형인 실업인협회장과 이영현 영리무역 사장을 제1차로 선정, 본국에 초청을 추천했다. 총영사관은 더 많은 교포를 추천할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약1,500명의 해외동포를 이번 행사에 초대한다.

해외로부터의 추천자는 23일까지 1,600이나 되기 때문에 정부는 추천자의 해외거주기간을 참작하고, 지도자급에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단. 반정부인사들의 모국방문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한국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국군의 날에 초대받은 해외동포는 항공료등을 자비부담한다.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

양자강에 최대홍수

7·8백명 사망추산

(북경)지난주 중공 양자강 유역에서 수십년래 처음인 세계최대의 홍수가 일어 7,8백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애초 희생자 추산은 약 4천명 이었다.

홍수대책 관리는 처음에 익사한 것으로 간주됐던많은 사람들이 구출 되었다고 말했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수재민의 건강상태는 대체로양호하다.

수재민 건강관리상 가장큰 문제점은 인푸루엔자(독감)의 전염이다.

새중동전 발발우려

이스라엘, 레바논 강타

(베이루트) 야사·아라파트 팔레스타인 게릴라대장은 20일 이스라엘의 "비인도적인 야만적 도전"에 대항, 이스라엘 공격을 선언했다. 아라파트는 이스라엘기관포와 전투기들이 레바논 남부 팔레스타인촌을 11일간 계속 공격했다고비난했다.

레바논 관리들은 최근의 이스라엘의 공격전에서 3백명이상의 시민이 죽고 8백명이상의 부상자가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이스라엘측은 팔레스타인 게릴라 기지만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게릴라와 레바논좌파들은 19일 반격전에서 이스라엘 상륙정을 완전 파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스라엘 발표에 의하면 1명의 장교가 죽고 7명이부상했다.

한편 사우디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레바논에게 각각 2천만 달러씩 원조하기로 결정했고 또 PLO와 레바논좌파에게 무기를 공급했던 리비아는 이번 전투에서 파괴된 무기들을 신속히 재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스라엘을 방문중인 미국 필립·하비브특별대사(전 주한대사)는 베긴 이스라엘수상을 만나 휴전을 설득중이다.

이스라엘측에 의해 시작된 이번 공방전은 지난 4월 시리아가 샘6소련제 지대공 미사일을 레바논으로 옮긴데서 발단됐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에게 샘6미사일을 철수하라고경고한 뒤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기지를 공격했다.

서방측은 관례적으로 이스라엘을 맹렬히 비난했다. 일반적으로 서방측의 이스라엘 비난은 한동안 계속되다가 중동국의 눈치를보면서 잠잠해 진다.

레이건 미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F-16최신예전투기 공급을 중단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 P 9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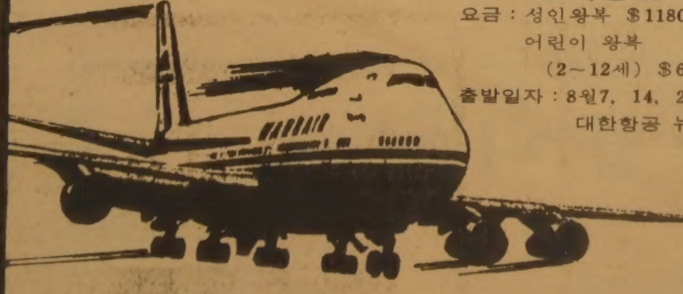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 창 헌

어디로 모실까요? IATA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 $6.25
출발일자 :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TORONTO,
B) 535-8801 R) 293-9970
최 동 주

현대그룹 재벌1위

고위 납세자 5명중 4명차지

(서울15일=연합)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한국인의 79년도 개인소득 1위를 기록했다고 국세청이 15일 발표했다.

80년에 납부한 79년분 소득세 집계에 따르면 정회장은 157억원(미화 3천2백만달러)을 벌어 110억원을 납부했다.

개인소득세 2위는 정회장의 5남 정명훈 현대건설 사장이다. 3위는 조중훈한진그룹 회장이지만 4위, 5위는 다시 현대그룹의 인척들이 차지, 한국재벌 1위의 면모를 과시했다. 현대그룹은 고위 소득세 납부자 50명중 5분의 1인 10명을 차지했다.

현대그룹은 최근 전 미국무성 고위관리 홀부르크씨를 고문으로 채용했다.

자금 $100만 돌파

천주교회 신용조합

토론토한인천주교회신용조합(조합장 김홍량)은 지난5일자로 회보를 발간했다.

그 회보에 따르면 동조합은 지난4월현재 주식총액이 100만달러를 돌파, 1년전 4월에비해 115%의증가를 보이고있다. 금년 말까지의 목표액은 180만 달러이다.

작년12월부터 연구과제로 삼아온 적금제도를 곧 실시할 예정이다.

◇천주교신용조합 임원진

조합장겸 이사장: 김홍량
부조합장겸 이사: 김문고
이사: 김지일·김정태·김진기
여신위원장: 김용대,
위원: 김상린·허대봉
감사위원장겸 상임감사: 정만봉
감사: 민병선·한용식
사무장: 유좌석
회계: 이애자

「오·캐나다」사망

하키서 국가불러

미스터 오·캐나다(Mr.O Canada)로 불리웠던 테너가수 로저 듀세가 62세 나이로 19일 몬트리얼에서사망했다.

◇미스터 오.캐나다.

우렁찬 목소리와 은발의 우람한 체구를가진 그는몬트리얼 태생으로 71년부터 몬트리얼 캐네디안의 하키경기가 있을때마다 캐나다 국가인 오·캐나다를 불렀다.

하키팬에게는 낯익은 듀세씨는 오페라 가수로서활약했고, 작년에 뇌종양으로 쓰러진 후에도 3주후다시 포럼(캐네디안의 하키스타디엄)에서 노래를 계속했다.

테리·팍스군.

테리팍스특집 중공〈인민일보〉

(북경)21일 북경최대의 신문〈인민일보〉는 캐나다의 영웅 테리·팍스를"캐네디안의 긍지"란 큰 제목으로 특집보도 했다.

중공 공산당기관지인 동신문은 테리팍스의「희망의 마라톤」은 캐나다 전 국민을 감동시켰다고 보도했다.

"팍스는 유명한 배우도 아니요, 뛰어난 과학자나정치가도 아니다. 그는 다만 22살의 불구청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캐나다 온 국민의 마음속에는 그가바로 캐나다의 가장 존경받는영웅이라고 새겨졌다"고〈인민일보〉구·야오밍 오타와특파원은 타전했다.

지난 6월27일 사망한 팍스의 죽음에대한 캐네디안의 반응을 보도한 귀절에서 동 특파원은"남녀 노소를 불구, 자기들 가족을 잃은것 처럼 깊은 슬픔에 잠겼다. 모든 관공서는 그의 장례식 까지 5일간 반기를 달았다"고 말했다.

팍스의 기사는 보통 국제정치에 할애되던 외신면의 대부분을 차지, 그의 성장과정, 희망의 마라톤동기와 과정, 팍스의 투병기록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팍스군에 관한 장편기사는 중공의 젊은이들에게영웅주의를 심어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중공 언론들은 중공젊은이들의 정치적 무관심과냉소주의를 비판, "젊은이의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하는 종류의 기사를 종종 보도해 왔다.

"용케도 내 전화번호 알아"

미스·캐나다 두포양 전화공세불평

20일 뉴욕서 열린 미스·유니버스대회에서 2위를한 토론토의 도미니크·두포양은 "평화를 잃었다"고불평이다.

미스·캐나다인 두포양은 23일 "집에 돌아온 후 전화 벨이 쉴사이 없이 울린다. 잠을 자려면 전화프러그를 빼버려야 할 지경이다. 도대체 사람들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놀랍다"고 말했다.

투루도 수상 역시 7국정상회담중 틈을 내 뉴욕의 두포양에게 축하전화를 걸 정도니까 두포양의 불평은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퀘벡에서 온 22세의 모델 두포양은 모델링, 파티참석 스케줄 등으로 더욱 바쁘다.

◇전화 시달림을 받는 두포양

벼락맞아 1명죽어

폭풍우 토론토 강타

지난주말 토론토 근교를 몰아친 폭풍우는 한 청년의 목숨을 빼았고, 수백만달러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19일 하오 팍비우·애비뉴에 사는 개리·골드윈(22)군은 비를 피해 스카보로 언더크립공원의 버드나무밑에 서있다가 이 나무를 강타한 벼락에 맞아 숨졌다. 골드윈군과 함께 비를 피했던 친구 캐롤·존슨(20)양은 심한 중상을 입었다.

소나기와 같이 몰아친 강풍은 골프공만한 우박을 퍼부었고,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버렸으며, 주택가의 창문들을 부수고 많은 정전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18일 하오 온타리오 남부를 강타한 폭풍우로 궬프 북쪽 오로라에서 웬디·록하트양이 벼락을 맞아 심한 중상을 입었다. 이날의 강풍은 런던지역의 많은 가옥에게 피해를 입혔다. 또 톤힐에서는 우박이 70마일 강풍과 함께 쏟아져 차들이 찌그러지고정원들을 뭉개 버렸다.

이번에 내린 폭풍우는 토론토 근교의 많은 골프장에도 피해를 주었다. 골프코스가 무너지고, 골프장내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버렸다.

◇벼락에 죽은 골드군

의문의 변사

카톨릭 신부

「프린스·에드워드」주의 켈리에서 카톨릭 신부가 의문의 변사를했다.

20일 상오미사를 예고없이 불참한 크리어란스·로쉐(53)신부는 세인트·조셉의 자택에서 심한 린치끝에 사망한 시체로 발견됐다.

77년에 조셉성당의 주임신부로 임명된 로쉐신부는 19일 자정께 켈리 마을에서 32km떨어진 살로트마을에 성당일 관계로 들렀었다.

이 사고는 프린스·에드워드에서 금년들어 일어난 첫 살인사건 이다.

경찰은 아직 뚜렷한 단서나 용의자는 없지만 사건해결을 낙관했다.

〈생활정보〉

노년의 원조절차

김 준 순(한국노년회 재무이사)

김준순씨

우리 교포들 중에는 노년의 사회보장제도에 해당이 되어도 수속절차를 알지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가 있어 조사한 한도내에서 노년들을 위한 원조절차를 알리고자 한다. 그외에 자세한 것은 〈온타리오주 이민안내서〉(이민과 발행)을 참작하면 된다.

이 책자를 주문하려면 온타리오 정부서점
880 Bay St.
Toronto, Ont.
M7A 1N8
가격: 1부 $1.25

수표나 머니오더로 보내면 얻을 수 있고, 한국노년회 (755-8079)로 전화문의하면 원조에 대한 수속절차와 편의를 돌봐주니 도움을 받도록 하기 바란다.

65세 이상의 노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각지방 자치체로부터 여러가지 원조, 보조금, 무료봉사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년들은 어떠한 순서를 밟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으로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는 노년들에게는 매월 $208의 팬션(연금)이 보장되어 있고, 의료비의 봉사도 매월 최고 $446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물품세의 보조금은 연간 $50이고, 자기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집세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최고 $500까지의 부동산세 보조금을 지급하여 준다.

또 노년들은 TTC(버스나 지하철)요금을 일반 성인의 반액(7장에 $2)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에어·캐나다의 항공권을 25%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원의 잔디깎기나 유서작성등을 무료로 봉사받을 수도 있다.

노년의 원조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금전적 원조일 것이다. 연방정부 노년연금은 생활비 지수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는 월$208인데, 이것은 65세 이상이고, 거주자격이 있는 노년에게는 예외없이 정부로부터 지불된다. 이것은 본인이 퇴직을 하였다든가, 그렇지 않다든가에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은 65세의 생일의 약 6개월전에 신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신청용지는 우편국이나 인캄텍스사무소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우리 교포의 경우는 캐나다 거주 만 10년이라야 해당된다.

또 아무 수입원이 없는 노년에 대해서는 소득추가 프로그램(G.I.S.)이 준비되어 있어 해당자에 대해서는 최고 월$209.03이지 급된다. 그리고 부부의 수입이나 캐나다의 거주기간에 따라서 연방정부는 은급해당자의 배우자(60~65세에 한함)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수당을 제공한다.

연방정부의 은급이나 수당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면
Box 750 Station "Q"
Toronto, Ont.
M4T 1L0
서신으로 연락 또는
전화: 423-6900이나
이토비콕구는 231-5683
스카보로는 752-6480, 노스욕은 224-4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은급 해당자는 이제까지 적립금을 내고 있을 때에는 65세로부터 캐나다 은급계획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의 CPP연금 계획의 최고 지급액은 월$244.44이다.

신청은 서면으로 연방정부 인캄텍스사무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자격이 있는 노년에게는 한 사람에게 월$466.11, 부부에 대해서는 월 $877.22의보증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 은급(G.I.S.)을 받고 있는 자로서 아무 수입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월 48.88의 보증소득이 지급되니, 이것은 정부로부터 자동적으로 계산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면 전화 965-8470이나 또는
온타리오정부
Income and Tax
Credit Branch
Queen's Park,
Toronto, Ont.
M7A 2B3
로 연락하면 된다.

은급해당자(65세 이상)가 주의 물품세나 부동산 소득세 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인캄텍스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은급해당자로서 금년 12월31일 이전에 65세가 되는 사람은 연방정부 노년연금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9월경에 온타리오주 물품세 계획으로 자동적으로 $50의 수표가 오게되고, 65세가 되는 부부에게는 동계획에따라 $100의 수표가 오게된다.

이외에도 60세 이상의 노년은 저임대 노년아파트도 대여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의 노년들에게는 각종 입장료를 무료나 또는 일부 할인하는 예가있다.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205〉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WHAT'S YOUR FAVORITE KOREANFOOD?

용산의 미8군 장교클럽에 사교모임이 있었다。

이때 한국식으로 자기 장기 자랑을 하였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18번 노래는 아리랑 입니다」라고 영어로 My number eighteen song is Arirang. 이라고 하였다。

이때 거기있던 한국사람들은 모두 웃음보를 터뜨렸는데 미국인들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이다。

「가장 좋아하는」이라는 favorite 의 단어를 미국인들은 사용한다。그러니까 만약 그것을 제대로 표현해 본다면 My favorite song is Arirang. 이라고 했어야 됐을것이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음식이 무엇인가요?」이렇게 묻고싶은 경우는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이렇게 하면된다。

A: Do you like Korean food?
B: Yes, I do.
A: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B: Um…It's hard to say. I like Bulgogi a lot but I guess I like kalbi better.
A: Do you eat Korean food often?

A: 한국음식을 좋아하세요?
B: 네, 그래요.
A: 가장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B: 음…뭐라고 딱잘라말하기가 곤란하군요. 불고기를 참좋아 하지만 역시 갈비가 더 좋은것같아요.
A: 한국음식을 자주 드세요?

※Favorite: 마음에 드는 It's hard-to say: 무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봄을 매우 좋아합니다만 역시 가을을 더 좋아합니다.」는I like spring a lot but I guess I like fall better. once in a while: 가끔

〈한국일보社 시카고支社제공〉

◇파산 직전 캐나다및 미국정부의 도움으로 회생한 북미 3번째의 자동차회사 클라이슬러의 이아코카 회장이 82년도「르바론」콘버터블을 타고 워싱톤 기자클럽으로 가고 있다. 그가 의기양양해진 것은 클라이슬러가 3년만에 처음으로 지난 4~6월 3개월간 1천2백만달러의 이윤을 낸 때문.

많은 교민의 참가 요망

체육회, 은행융자도 받아

8월15일 전국 한인체전을 준비중인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는 21일 체전및 부속사업(쇼) 경비조달을 위해 우선 은행에서 융자받았다고 밝혔다.

이병권 회장, 강준남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총예산 4만5천달러(한국일보 16일자)는 대부분 집행부와 이사진 35명의주머니에서 나와 은행빚을 갚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대규모대회를 한다고 해서 교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소위 손벌려 마련하는 체육대회는 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은행융자는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임원들이 연서로 서명, 빌렸다고 이들은 말했다.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체육회는 사상최대의 이번 예산은 오히려 작게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회 당일 2만달러 가 소요되며, 16일 연예인쇼에 2만5천달러 이상이 든다.

하춘화, 김정구, 고은봉씨등 연예인 6명이 요구하는 보수는 16,500달러이며, 비행기값은 11,000달러, 이밖에 체재비등을 합하면 예산액을 훨씬 넘는다. 코미디언 서영춘씨는 7천달러를 요구, 그의 초청을 재고려중이며 대신 조미령, 문정숙씨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체육회는 밝혔다.

체육회는 체전의 각종경기 참가비, 또는 관중의 입장료등을 일체 안 받는다.

대회장에서 바베큐를 할 수 없으므로 교민들은 도시락만 지참하면 된다. 종료 예정시간은 밤 8시30분.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패등 참가상이 주어진다.

지난 17일 끝난 로스엔젤리스 교민체육대회 경비는 16만달러였고, 이중 한국정부로부터 2만달러가 지원됐으나 이번 토론토행사에서는 한국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고 체육회는 말했다.

체육회는 경기가 열리는 램포트·스타디움(킹·스트릿×도버코트)에 4피트×12피트짜리 광고판 40개가 있어 교민업체들이 이 광고판에 광고를 내줄 것을 요망했다. 또한 대회프로그램에도 광고가 게재된다.

아침 9시 시작되는 체전에서는 8·15 광복절 기념식에 이어 어린이들의 마스게임, 1백여명 태권도인의 시범, 김용순무용단 출연등이 있다. 해병동지회 회원들은 얼룩이 해병전투복을 입고 나오고, 불루어 코리아타운 번영회에서도 대거 참가한다.

귀빈급으로는 캐나다정계인사들 외에 한국서 조상호 대한체육회장, 전경환 새마을본부장(전두환대통령 동생)이 참석하며 이규현 주캐나다 한국대사, 이상훈 토론토총영사, 김창훈 몬트리얼 총영사등이 동석한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주최측은 우편파업의 영향으로 체전 PR이 덜 돼 많은 교포들이 불참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경기장은 2만명을 수용하는 대운동장이다.

체육회는 교회팀, 단체 회원들의 경기참가와 참관을 독려하는데 특히 힘쓰고 있다.

체육대회의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려고 어린이경기, 줄다리기등 오락적 게임을 당일행사에 포함시켰 다는 체육회는 "체육회는 개별 경기를 주최할 수는 없지만 종합체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의 체육회 임원들은 "체육회는 경기단체가 아니므로 체육행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 체육행사를 갖지 않았다.

초대합니다

푸른 낭만의 계절,
멀리 고국 여대생들의 특수미술작품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오니 부디오시어 감상하시고
각 가정에 한폭씩 걸어 주시기를…….

주 최: 토론토대학교 한국학과 후원재단
후 원: 재카나다 이대동창회
OPENING리셉숀: 8월5일 오후4시~8시
전시일자: 8월5일(수)~9일(일)
수, 목, 금: 오후12~9시
토, 일: 오후2~8시
장 소: 토론토대학교 인터내쇼날 학생회관
33 ST. GEORGE

작가소개:

〈김 수 혜〉
● 이대부속고등학교 졸업
● 이대 미술대학 장식미술과 졸업
● 극동방송국 아나운서 겸 P.D.

〈김 현 숙〉
●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대 미술대학 자수과 졸업
● 현 이대 교육대학원 재학

〈차 영 순〉
● 배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대 미술대학 자수과 졸업
● 현 이대 교육대학원 재학
● 이대 미술대학 섬유예술과 조교

〈찬조 출품자〉 ○이명희 도혜령 손경숙 유경희 박명정 유영희 김옥광 마인숙 김인숙 김수혜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정부、海外投資 전면開放

國威손상등 없는限 世界어느곳이든지 可能

資格·許可節次·相對國·事業性要件 완화
料食·貴金屬·不動産業등도 抑制않기로

정부는 해외투자자의 자격요건과 허가절차를 완화하고 투자상대국및 투자사업성요건을 폐지함으로써 투자자가 원하면 세계어느곳에가서 어떤사업을 하건 국위손상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를 장려키로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취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11개항목의 대외송금을 자유화하고、해외기업체의 현지외화 보유한도를 확대하며、海外支社의 외국부동산취득및 이익금 현지유보를 허용하고、신규 수출업자에대한 현지금융을 허용하며 이민사업을위한 해외투자등도 허용키로 했다。정부는 국민의 해외진출확대를 위한 이같은방안을 각종외국환관리규정에 반영、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1일 재무부가 마련한 외국환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해외투자촉진을위해 지금까지 억제업종으로 삼아왔던 ▲요식업 ▲귀금속판매업 ▲단순투기목적의 부동산투자 ▲영세서비스업등 억제업종을 폐지하고 ▲이민자금성격투자사업을 장려키로했다。다만 ▲무기 탄약등 해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주는사업 ▲국위손상사업 ▲公序양속위반사업 ▲우리경제에 중대한영향을주는 사업등을 제외하고는 어떤사업에라도 해외투자를 모두 허용키로했다。또한 투자상대국도 수교국및 투자원본회수가 가능한국가중 투자상대국의 요건을모두 폐지함으로써 어느나라에라도 해외투자를 할수있게했다。또한 해외투자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투자원본회수에 20년이상걸리는 부동산투자도 허용하며 해외현지법인의 이익금 현지유보도 허가로 가능토록 했다。

또한 해외건설및 용역업자의 현지법인에게도 현지금융을 지원하며 수출업자 거수출실적이없는 자도 韓銀총재의 승인을얻어 현지금융을 줄수있도록했으며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선 계약액의 2%까지 현지외화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해외지사에 대해서는 영업기금 (최고한도30만달러)및 적립금상당액까지 외국부동산취득을 허용하고 결산이익금중 1만달러까지는 자동적으로、1만달러 초과시는 韓銀의 허가를 얻어 현지에 유보할수있도록 했다。또한 중소기업에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수출업자와 국내로컬공급업자간 ▲수출업자와 수출대행 회사간에도 외화예금移替방식에 의한 외화결제를 허용키로했다。

또 외국환은행의 자율성을 높이기위해 해외점포의 업무용부동산구입을 자동허용하고 해외점포서도 우리나라돈을 매입할수있도록 했다。

不正색출 專擔機構 검토

「깨끗한 政府」위해…法的根據 마련중

申告一定額을 報償金으로
利權부서 下位職 재산등록도

「깨끗한 公職사회」와 「깨끗한정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정부는 부정부패 公職者를 색출할 수있는 專擔機構를 설치하는등 法的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관계자는 21일 공무원의 부정방지를위한 색출전담기구의 설치는 정부가그동안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위해 노력해온결과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올렸으나 아직도 民願관계 부서등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어 이를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犯罪에대한 專擔기구의 설치방침은 공무원범죄를 일반범죄와 분리시켜 취급하기위한것으로 정부는 이 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직자의 賂物授受등 不正사실을 신고하는 공무원에대해서는 신고액의 일정비율을 報償金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도 아울러 추진중인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정부는 공직자의공무집행에 있어서 公正性을확보하기위해 입법추진중인 관계법이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기엔 미흡하다는 판단을하고 특히 下位직 공직자의 부정을 막는데는 큰 실효가 없을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民願이나 稅務또는 利權에 관계되는업무를 직접다루는 下級공무원들의 부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위해 一定직급의 이들 공무원들도 財産을 등록케하는 방안을 관계법에 포함시킬것을 아울러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日衆議院委長 來韓

야마시따·간리(山下元利) 日本衆議院운영위원장이 李鍾贊국회운영위원장의 초청으로 3일간 한국을 방문하기위해 21일 낮12시30분 JAL便으로 來韓했다。

企業意慾의 고취 稅制개선등 건의
全經聯、民正黨에

民正黨은 21일하오 중앙당사에서 全經聯의 鄭周永회장등 간부들을 초청、정책간담회를 가졌다。

李珍雨정책위의장등 黨정책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全經聯측은 기업의욕의 고취와 稅政 納稅풍토의 正常化를위한 稅制의 개선을건의했다。

全經聯측은 특히 이자리에서 ▲기업利潤이 클수록 납세를 위한 부채를 증대케하여 黑字倒産을 초래하고 있기때문에 이를방지하기위한 紙上配當稅制의 폐지▲法人稅와 종합소득세가 다같이 高稅率인데다 增資의 주체가되는 寡占株主의 자기자본 充實化를위해 法人소득、종합소득간의 2重부담中和▲脫稅를 막고 稅源배양과 陽性化를위해 法人稅53%、종합소득세79·05%의 高稅率구조 是正등을 건의했다。

蘇軍事力팽창에 警告

政治聲明草案 별도作成
7國頂上회담 오늘閉幕
美"高金利 年內인하"

【오타와20日(AP=聯合)】서방7개 선진공업국 정상들은 20일 오타와 동북방 몽트벨로城에서 개회된 제7차 서방경제정상회담 1차회의에서 미국의 고금리정책을 비롯한 서방측 경제정책에 관한 열띤 논란을 벌이는 한편 中東위기의 계속에 우려를 표명하고 소련의 군사력 증강을 강력 경고하는 별도의 공동정치성명초안을 작성했다。

★관련기사3면

中東紛爭악순환 自制하도록
아프간國際會議·캄自決촉구

한편 정상들은 이회의를통해 각국이 ▲중요경제정책을 결정함에있어 他國과 사전협의를 가지며 ▲自由무역의실질적인 확대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관하에 소련블록과의 무역문제를 다루기위한 고위급 협상을 모색한다는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를 비롯한 모든 중동국가들에대해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게릴라들간의 공격과 보복공격의 악순환으로 확대되고있는 중동분쟁에서 자제를 발휘해주도록 성명을통해 촉구했다。

서구지도자들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예상대로 미국의 고금리정책을 비판하면서 금리인하조치를 촉구했으며 특히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정책으로 서구는 일대사회불안폭발의 위험수준까지 내몰려졌다고 불평했다。레이건 대통령은 이에대해 미국의 고금리는 올해말까지는 인하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소경고가 포함된 정치성명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평화와 국제정세위협요소에 대한 개괄적설명。▲소련의 군사력증강에 대한 깊은 우려의 표명과 동서군사균형회복을 위한 서방측노력의 촉구▲아프가니스탄 문제 국제회의개최에대한 소련측의호응촉구▲캄보디아국민의 자결권지지▲세계각국국민들의 외부개입없는 자결권 재천명。

이같은 내용의 정치성명을 폐막공동성명과 분리시킨것은 7개서방선진공업국정상회담이 경제문제토의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는점을배려한 것이다。

테러 強力응징도

서방7개선진공업국정상들은 또한 앞으로 국제테러리즘의 재발을 막기위해 보다 폭넓고 강력한 응징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7개국정상들은 특히 지난 3월 파키스탄국내선 항공기 공중납치사건과 관련、바브라크·카르말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행위를 신랄히 규탄하고 『대사관과 영사관및 외교관에 대한 테러행위를 선동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국가는 즉각 국제적인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西方國家들에 데탕트反對 강요
蘇프라우다紙비난

【모스크바20日(聯合=AFP)】미국은 오타와 서방경제정상회담에서 다른 서방국들에게 데탕트반대정책을 강요하고있다고 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가 20일 비난했다。

이 신문은 논평기사에서 레이건 미행정부가 거의 모든 국제문제들을 반소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있으며 『소련위협』이라는 『거짓이론』을 내세워 오타와회담을 反데탕트정책으로 몰고가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라우다는 미국이 일본의 지원을 얻어 프랑스와 서독에 반소전선구축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넣으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현재난이라는 방향을향해 과연 서방7개국이 모두 함께 움직여 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離任 튀니지大使등 全대통령、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21일 상오 청와대에서 하비브·벤·야히아駐韓튀니지대사 (일본常駐·사진)와 페드로·마데이라·메·안드라드駐韓포르투갈대사(〃)로부터 차례로 離任예방을 받고 修交훈장光化章을 각각 주었다。

이자리에는 盧信永외무、金容植총무처장관이배석했다。

한편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이들두 대사부인을 별도로 접견、離任인사를 나눴다。

새마을誠金 기탁 企業人5명 치하

全斗煥 대통령은 21일 새마을誠金을 기탁해온 5명의기업인에게 親書를 보내 치하 격려했다。

▲金用山極東건설회장▲趙鎭九三扶土建회장 ▲安元宗東興산업회장、이상1억원▲裵禎一南光土建회장3천만원▲韓一은행 安永模행장등 직원일동9백50만원。

國防委 정례交流

丁議長、美議會지도자 만나 國軍현대화 支援

【워싱턴=李成俊특파원】丁來赫국회의장과 美의회지도자들은 韓美두나라 議會차원의 유대강화와 이해증진을 위해 양국의회국방위원회간의 정례적인 상호교류를 갖기로 합의했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丁의장등 韓國의원단은 20일 상·하오(한국시간21일상오)에걸쳐 스트롬·더몬드上院임시의장、존·타워上院군사위원장및 멜빈·프라이스下院군사위원장과 각각 만나 두나라 의회간의 유대강화와 韓國軍현대화 계획을 포함한 對韓군사협력문제등에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丁의장과 타워위원장및 프라이스위원장은 우리나라 國防委와 美上下양원 軍事위원회간의 정례적인 교류를 각각 갖기로 합의했는데 이에따라 美國측은 오는 8월말 내지 9월초로 예정된 韓國국회 국방위원단의 訪美에대한 答訪으로 오는 10월초 양원 군사위원단을 韓國에파견하기로 약속했다。

丁의장은 또 이들 지도자들에게 美國의 對韓軍事판매借款의조건완화、韓國防衛산업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등을 요청했으며 이에대해 美의회지도자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經濟도 政治도 重大事 오타와 근교 몽트벨로城의 西方7개국 경제정상회담에 참석중인 西方수뇌들이 일렬로 포즈를취하고있다。좌로부터 가스똥·토른EEC 의장、스즈끼·젠꼬日本수상、슈미트 西獨수상、레이건美대통령、트뤼도 캐나다수상、미테랑프랑스대통령、대처英수상、지오바니·스파돌리니 이탈리아수상。【몽트벨로 (캐나다) 20日AP=聯合】

抗癌劑피시바닐、인터페론生成높여
日、東北醫大연구…값도1/10로 낮아져

암의 면역요법으로 쓰이고 있는 피시바닐이 체내의 인터페론생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최근 일단의 일본東北大의학부 연구팀에 의해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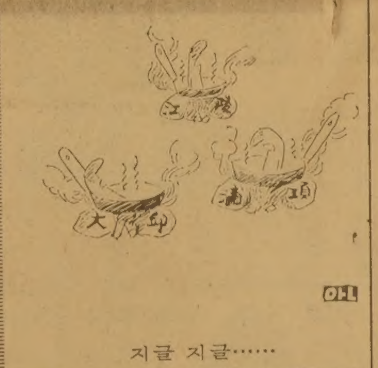
인터페론은 바이러스가 몸안에 침입했을때 우리 몸속의 산세포가 만들어 낸 일종의 단백질로 감기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치료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터페론은 種特異性을 갖고있어 인체세포가만든것만이 인간의 바이러스질환과 암에 효과가있다。이때문에 인터페론 생산비가 엄청나게 많이들어 보편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피시바닐이 인체내에서 인터페론생성을 높인다는 사실은 이런뜻에서 관심을 모은다。東北大의학부 연구팀은 실제로 피시바닐을 이용、인터페론을 종전의 10분의1정도 값으로 얻어낼수 있었다고。【外誌】

泰國기술장관 來韓

태국 티나코론·반루그라비과학기술성 장관부처 일행 5명이 李正五과학기술처 장관초청으로 21일 우리나라에 왔다。티나코론장관 일행은 5일간 머물며 한·태 양국연구기관간의 자매결연과 공동연구、기술훈련생및 전문가 교류등을 포함한 과학기술협력방안을 협의한후 25일離韓할 예정이다。

社會漫評



지글 지글……

地平線

20일밤 서울九老輸出工團3단지에있는 어느化學공장서 藥品수송파이프가 파열되어 종업원1천여명이 待避소동을벌였고工員1백여명이한때가스中毒으로 입원했는데 9명은 重態라고한다。또 17일밤에는 都心地에서 注油所가폭발하여 4명死亡、6명의 重輕傷者를냈다。이보다앞서 江原道內탄광에서는 큰事故가 발생했었고、타지방에서도 大小의 각종사고가일어나 産災를 당한사람이 적지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는 天災地變등 不可抗力的인 災難을 아주 避할수는 없다。또 産業社會건설이 급진전함에 따라 그副生作用으로 갖가지 産業災害도 발생하게 마련이다。大型鑛山사고、交通사고、機械작동에 수반되는 사고、漏電등에 의한 각종사업장의 火災따위가바로그것을 말해준다。그럴수록 人間은 自然의 숨김없는 挑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어떠한災害에도 屈하지 않고 이겨낼수있는 슬기와 意志를 다져나가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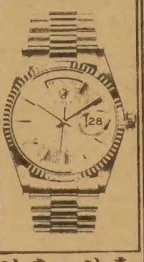
▼勞動部集計에 따르면 80년의 경우、우리나라 근로자 11만3천3백75명이 産業災害를 입어 이중 1천2백74명은 사망했고 1만4천8백73명이 회복불능의 신체장애자가 되었으며 그 産災로 인한 經濟的손실은 무려3천1백25억원에 이르렀다。특히 우리나라의 産災발생률은 지난72년의 發生指數를1백으로한때 2백43·3으로늘어났다고 한다。이렇듯 先進産業國들에비해 훨씬 높은 産災率上昇에는 심각한문제점들이 내포되어있다는데서 人間의 生命과 健康을 보다더 尊重할줄아는 社會的인 氣風과 責任意識이 振作돼야만 하겠다。

▼産災發生을 원인별로보면 事業場의 安全施設과 그管理및 監督의 불충분 그리고 사용자측의 認識 또는 努力의부족으로인한 災害가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있고 근로자의 安全作業未熟이 28·8%、나머지 27%가근로자의 不注意로인한 災害로 나타나있다。이에 비추어 産業災害는 결코 不可抗力的인 것이거나 不可避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그災害가 발생할 수 있는 可能性을 미리미리 點檢하고 安全을 기할수 있는 대비책을 서둘러 강구한다면 능히 豫防할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새時代는 産業과 福祉의 균형적인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企業들은 安全投資를 늘리고 勞使가함께 産業安全敎育에 적극 참여하며 安全守則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일이다。事故발생의 危險을 豫見하고 있으면서도 설마 무슨일이 있겠느냐고 盲點을 방치해둔다든가 收益에만 치중하는나머지 安全投資에 인색한企業主가 있는 상태하에서는 産災의 예방이 어려울것이기 때문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7
은 : 온스당 US 8.46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 장 석
☎ 247－9347

〈김미영 한국 민속무용 연구소〉
MI YOUNG KIM'S KOREAN FOLK DANC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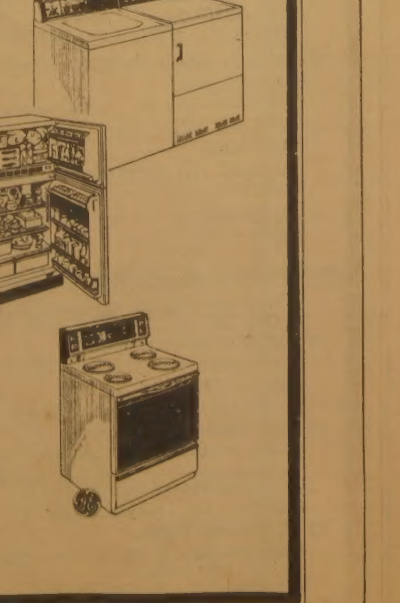
경력 :
●6세부터 부친 김윤학씨 사사
●제1회 전국국교(이화여중 · 고 및 조선일보사 공동주최)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제4회 전국중 · 고교 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이화여대 주최)
●배화여중 · 고 동창회 주최 무용발표회 개최
●김미영 무용발표회 수회 개최(한국예술극장, 전국)
●무용연구소경영(서울돈암동 12년간)
●일본및 유럽순회 공연
●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 연구소 경영

金美影孃
舞藝妙境

金美影
그이름 世界에 빛나리

〈만5세 이상 남 · 녀 어린이 지도 합니다〉
201 VAN HORNE AVE. #509(Donmill × Finch)
499－5079
※고전무용에 필요한 무대장치및 소도구 제작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電器地毡公司
WILSON APPLIANCES & HOME FURNISHINGS
BUY NOW & SAVE!
각종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모든전자제품 특별세일.



WA
593－1801, 1802
83 GERRARD ST.
(LuCliff Place · Bay & Gerrard)

인플레抑制·失業감소최우선·開途國과 協力강화

오타와 宣言
〈本紙긴급입수〉
西方경제頂上회담

【터론토21日=金明奎支社長】 서방7개국 정상회담을 결산하는 공동선언(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序 우리는 급격한 변화와 도전의 시대를 만나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모든 나라가 심각한 경제문제 및 정치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나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우리 자신과 모든 우호국이 책임을 분담하고 추구하려 한다. 지구의 환경, 생태계, 자원의 보존에 주의한다.

經濟 이번회의의 첫번째 도전은 민주주의 공업국의 경제재활성화다. 성장은 공업국보다 개발도상국이 급진하고 있다. 7개국중 4개국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율은 앞으로도 급증할 것이다. 금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 高金利가 장기화한다면 생산투자를 저해, 선진·개발도상국 모두 적자의 큰 부담을 안게 될것이다. 우리는 인플레를 억제, 실업을 감소시키는 일을 최우선해야만 한다. 또 재정적자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對개발도상국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안정, 경제성장과 독립과 진정한 비동맹을 지지한다. 그들과 협력 및 관계강화를 재천명한다. 개별적이고도 다각적인 토의를 갖는 것을 희망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문제와 참담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들에게 원조와 경제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貿易 자유무역체제의 유지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서 구체화된 다각적 무역체제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자유무역체제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력한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광범한 나라들이 상호무역규약에 참가시킨다고 하는 의도를 반복해서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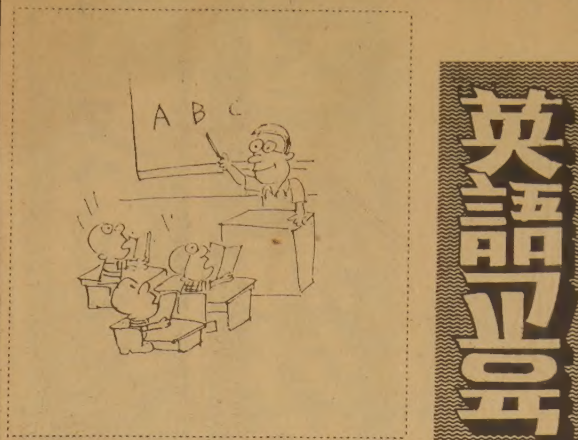
소련과 그 우방국도 개발원조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여한 바는 크지 않았다.

에너지 우리는 작년 베네치아에서 에너지·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모색, 성장과 석유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목표를 설정. 현재 구조변화는 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석유에 취약한 상태다. 석유공급은 앞으로 10년동안 안정성장의 재활성화에 대해 잠재적 제약이 될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전략을 잘 진행시키면 범세계적 경제의 건전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東西經濟관계 우리는 또 정치안보를 위해 동서경제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인 이해의 균형이 있음을 유의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서로 협의했다. 협력을 지속할것에 합의했다.

結論 이번과 지금까지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공통의 문제는 밀접한 협의와 협력으로서만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의 행동과 손을 맞잡고 전진할 것이다.

英語교육 어떻게…⑥



成敗는 早期교육에

각종 視聽覺교재 開發보급 빨리 배우는것만이 지름길

외국인과 직접접촉할 기회가 적은 우리현실에서 영어회화를 그나마 확실하게 익힐수있는 길은 TV나 각종 시청각교재를 이용하는것이다. 녹음시설과 헤드폰시설이 갖춰진 語學室에서, 또는 시중에 나도는 회화용 카세트를 통해 오랜시간 듣고 말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방법이다. VTR교재는 화면과 말을 동시에 보고듣는다는점에서 카세트보다 더 유리하다.

사람과의 개인적 접촉없이 기계에의해 배우는 방법, 이 방법의 결정적인 약점은 뜻의 전달이 「상호적」이 아니라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감정의 상호流入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상태보다는 학습효과면에서 떨어지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시청각교재의 활용은 우리처지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것만이라도 더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수있었으면 하는게 우리 현편이기 때문이다.

실용영어를 배우려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외국어학원도 늘어났고 그밖에 기발한 각종 시청각교재들이 계속 개발되고있다. 서울시교위에 등록된 외국어학원만도 현재 90여개에, 정원이 2만2천명에 이른다.

…【金時福기자】 【끝】

오타와 西方7國정상회담 이모저모

軍警3천명 동원

○…서방7개국 경제정상회담이 개최된 퀴베크州 몽트벨로城 주변에는 캐나다사상 최대의 물샐틈없는 경호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안전보장작전』이라는 암호명의 이번 각국정상경호작전에는 총2백만달러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장갑헬리콥터·장갑리무진등 최신장비가 동원되고 항로와 수로가 엄격히 통제될뿐아니라 폭탄제거임무를 띤 잠수공작원, 3천여명의 군경이 비상경계를 펴고있다.

회의장인 몽트벨로城 자체에는 특별한 보안장치가 눈에띄지 않지만 성주변은 병영을 방불케 한다. 주변 54ha에는 3m높이의 철조망이 쳐져 있고 몽트벨로城에 이르는 1.6km의 도로…

武裝헬機 사용

2백만弗투입 철통警備

파업 加방송협회직원들 示威기도

英·佛語가능한 트뤼도首相통역도

회의보도에 抗議

城침입청년 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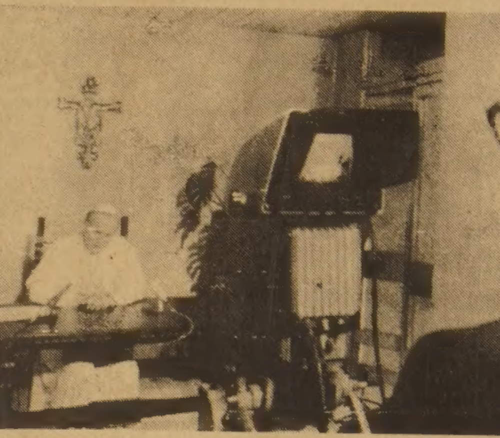
美, 이스라엘에 休戰촉구

레이건, 베긴에 「강력한意思」전달

暴力확산防止 역점

보좌관들 "紛爭종식 희망적이다"

【몽트벨로20日AP=聯合】 레이건 미대통령은 20일 확산일로에있는 레바논내의 교전상태를 종식시키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의사」를 베긴 이스라엘수상에게 전달했으며 백악관보좌관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게릴라간의 종전이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病院서 TV녹화하는 교황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20일 입원중인 제멜리병원에서 21일 유럽지역에 방영될 부메스국제성탄식용 메시지를 TV녹화하고있다. 【로마20일=UPI聯合】

아랍聯 防衛委소집

레바논侵攻 이스라엘응징책 토의

【바레인20日聯合】 아랍권은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이 11일째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20일 아랍연맹방위위원회 긴급소집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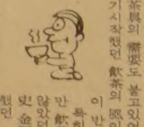
유럽言論 對이규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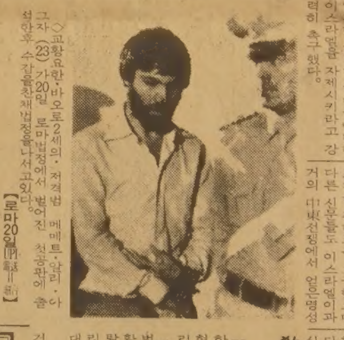
레바논공격싸고 일제砲門

【런던20日聯合】 유럽각국의 주요언론과 정치인들은 20일 이스라엘의 레바논공격을 규탄하고 미국에대해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메아리

茶香





◇교황요한·바오로2세의 저격범 메메트·알리·아그자(23)가 20일 로마법정에서 벌어진 첫공판에 출석한후 수갑찬채법정을나서고있다. 【로마20일UPI聯合】

教皇저격사실 是認

아흐자 첫공판

【로마20日AP=聯合】 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터키의 테러리스트 메메트·알리·아그자(23)는 20일 로마법정에서 자신의 교황저격사실을 시인했으나 그를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 교황청이 대신 재판할것을 요구했다.

헤이그國務 對이 F16供給연기

【몽트벨로(캐나다)21日AP】 헤이그 미국무장관은 20일 중동에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는 이때 미국정부가 이스라엘에 F16전투기를 추가공급한다는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F16기 인도를 다시 연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波共黨대회 폐막

民主선거·비판自由 보장 새黨규약·決議案등 채택

【바르샤바20日UPI聯合】 폴란드공산당 특별전당대회는 20일 지도층의 의기제한 ▲당·政기능분리 ▲비판의 자유보장 ▲주선거보장 ▲민주적 선거 등을 …

9월부터 국민에配給

스위스, 核戰爭대비 특별非常식량 開發

하루 350g으로 견뎌

스위스정부는 핵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하여 하루에 3백50g씩만 먹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비상식량 개발에 성공, 오는 9월부터 국민들에게 배급할 계획이다. 【外紙】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김용순무용연구소

동 부(SCARBOROUGH)
장소 : 한인회관대강당(20 MOBILE DR.)
시간 : 수요일 : 5시~7시30분
토요일 : 10시30분~3시까지
서 부 (MISSISSAUGA)
장소 : Burnhamthorpe Community Center Lounge "C"(1500 Gulleden Dr) (Burnhamthorpe & Dixie)
시간 : 금 : 6시~7시30, 7시30~9시까지
중 부(DOWN TOWN)
장소 : Western Y. M. C. A(15 Robina Ave. (on St. Clair)
시간 : 화 : 5시~6시30분 학생반
7시~8 : 30분 주부특별교실
문의전화 : 751-8891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아세아한약방

●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 특수 한약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678 BLOOR ST. W.
☎ : 530-0522 조 지 섭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分斷國 統一政策 비교토론

韓·獨학술회開幕 양국 碩學65名참가

南北韓과 東西獨의 分斷은 계및 통일정책비교를 主題로 한 韓國국제학술회의가 21일상오 서울하이야트호텔에서 개회식을 갖고 개막됐다.

간증을 끝내며

나의 이력서

<題字 · 玄信圭>

玄 信 圭 ⑧⑧

올해는 내게는 무척 바쁜해다. 또 회한이없는 좋은해로 삼고싶다.

다른 하나는 IUFRO회의가 끝나고 대규모포플러시찰단이 우리나라에 온다. 그동안 한국의 포플러 조림 實績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엔 그들 눈으로 직접 확인시키는 기회가 되어 산림한국의 일면을 과시할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를 마감하는 의미로서 이들행사 준비를위해 바쁘게 뛰고 있다. 그다음은 사람들이 그랬고 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前面에서 물러나 조용히 나를 정리할 참이다.

「山林과 國力비례한다」는 신념 不變

◇한 임목육종학자의 간증인 「나의 이력서」를 맺는 筆者는 후련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옆에앉은 다른 筆者는 그의 胸像이다.

信仰과 더불어 최선다해온 삶…후회는 없다

내일부터 尹致暎씨 파란많은 建國秘話

다음번 「나의履歷書」의 筆者로 政界元老인 東山尹致暎씨(84)가 붓을 들게되었읍니다.

交通사고 감소 추세

올들어 작년보다 1·1%

治安本部 집계

가짜 李小龍영화

살아있는 영원한 童心

내일 小波50周忌 —옛 친구의 회고담

23일은 「어린이의 벗」 小波 方定煥선생의 50周忌가 되는날。어린이관계단체들은 이날하오4시 천도교강당에서 합동으로 추모모임을 갖고 어린이와함께 살다간 小波를 추모하게된다。다음은 小波와함께 색동회를 창설, 어린이운동을 함께 한 尹克榮씨(78·색동회중앙위원)의 小波회고담이자 추모의 글이다。

윤 극 영

귀뚜라미 귀뚜르르 가느단 소리
달님도 추워서 파랗습니다
울밑에 과꽃이 네밤만 자면
눈 오는 겨울이 찾아온다고
귀뚜라미 귀뚜르르 가느단 소리
달밤에 오동잎이 떨어집니다

이 글은 1925년 초가을 어느날 그때의 어린이 노래단체였던 「달리아회」를 찾아와 나에게 안겨준 선물이었다。

「이런 것도 곡조가 되나? 되거던 알려줘」 이런 말투로 눈인사를 남긴채 小波는 갔다。

나는 몇번이고 읽어보았다。 맘에 들었다。 곡조도 되어져 나왔다。

가난한 이나라 어린이 웃음위해 스스로는 울어

어린이의 벗

小波선생 50周忌를 맞아

엄 기 원

1931년 7월23일
어둠에 환히 비치던
큰 별 한 개 떨어졌네
빛이 꺼졌네.

소파 방 정환
그는 분명 사람이었네。
진장한 젊은이。

그렇지만
그는 분명 사람이 아니었네。
하늘의 별이었네
별 중에 샛별。

어른의 속물로 부림받던 생명들
아이들 「어린이」라 부르고
사람 대접을 해 주자고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북치고 나팔 불고 소리치며
쫓아다닌 젊은이。
이야기 나그네길
8도 삼천리를…。

아, 오늘의 어린이들 행복하여라。
오월의 어린이날 감사하여라。
소파가 아니었으면
어찌 이 기쁨 맛보랴?
소파가 아니었으면
어찌 대접 받으리
나라 꽃송이들。

해뜨면 거리에서, 나무 그늘에서
시골집 사랑방에서
어린 조무라기들
이야기 친구 되고,

밤이면 등불 밑에서
동화를 쓰고, 동요를 짓고

일본 땅 한복판에서도
젊은이들과 뜻을 모아
색동회 만들었다네。
어린이 운동을 셨다네。

소파는
영원한 어린이의 벗。
오늘 우리는 모여
50년 전 그를 기리네。
소파가 연설하던 천도교강당에서。

이제
세계 속 한국으로 발돋움하며
내 국기 앞세우고 나라 빛내는
우리 새싹들。

당신이 부르짖던 구호처럼
씩씩하고 참된 어린이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도와간다네。

50년 전 그날
어둠에 환히 비치던
큰별 떨어져 빛이 꺼졌지만

1981년 7월23일
별 다시 솟았네。
우리들 가슴 속에。

아아,
소파 방 정환 선생
어린이의 벗이 되어
영원히 살아있네。

익살·야유·분노·슬기를 섞어 비빔밥 맛을낸 매력

서울서 국제民俗樂 축제

9개국競演, 8월25일부터

◇8월27일에 공연될 남인도음악의 공연무대。

流星의 賊 <137>

亡兆의 日月 ㉓

李炳注作

李友範畵

모란꽃이 피네 생 <154>

그립자놀이 ㊳

趙善作作

禹慶熙畵

아 세 아 선 물 센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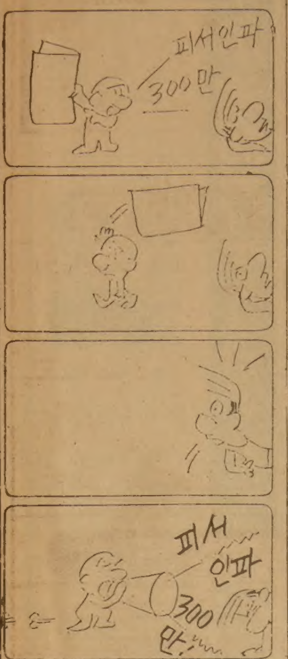
SUMMER GRAND SALE (기간 : 81년7월15일~8월31일까지)

북경우황청심환 40% OFF	인삼녹용환 백봉환 40% OFF	당뇨병 특효약 옥천환 30% OFF	중국 길림산 녹용 3 BRANCHS 40% OFF
카나다 산 웅담 40% OFF	여행용 가방 삼손 나이트 30% OFF	물개, 뱀가죽 백 30% OFF	남녀청바지 $16.99
고급펜 크로스 30% OFF	피에르·카르뎅 와이샤스 30% OFF	피에르·카르뎅 벨트 30% OFF	기타 : 게브랄티 비타민, 전기다리미, 고급화장품등등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0-0522, 3 조 지 섭, 김 영 철

두꺼비 안의섭



한국、그리스 大破

유니버시아드大會

남자籠球 B조예선

빠른 패스로 對人防禦 깨뜨려

남자體操·펜싱 플러레는 豫選탈락

91대72

【부쿠레슈티=操森특파원】제11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20일부터 경기에돌입, 한국은 7개 종목가운데 3개종목에 출전하여 남자농구가 예선B조서 그리스를 91─72로 대파, 첫 승리를 장식했으나 남자체조와 남자 펜싱 플러레개인전은 예선에서 탈락했다.

농구

한국 남자농구는 전반전에 그리스의 장신벽에 부딪쳐 리드를 당하며 고전했다. 한국은 전반전 종료직전 李忠熙의 슛으로 간신히 37─37의 동점을 만들었다. 그리스는 2m이상의 장신선수를 4명이나 출전시켜 리바운드를 독점했다. 한국은 후반전에서 사이드슛의 호조로 계속 점차를 벌려 안승했다. 한국은 신장의 열세를 커버하기 위해 2─3 지역방어를펴고 기민한 패스로 그리스의 대인방어진을교란, 관중들로부터 갈채를받았다. 공격에서는 林正明과 李原宇가 포스트역할을 맡고 李珉鉉은 플레이메이커로, 李忠熙 安鐘寬 李寧根등은 외곽슈터로 활약했다.

체조

남자체조단체전에선 한국은 美國 日本 쿠바 濠洲와 예선1조에서 대결, 5팀중 4위가 되어 예선에서 탈락했다. 한국은 權五爽 李大珩 韓忠植 孟佑京등 4명을 출전시켰으나 기술에서 역부족이었다. 李大珩은 안마와 철봉에서 다리가 걸리고 팔이 꺾이는등의 실수로 두번 추락, 부상을 입었고, 韓忠植은 마루운동에서 역시 실수로 쓰러져 1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펜싱

남자펜싱 플러레개인전서 한국의 車律 金憲秀 趙在奉은 세계적 강호들을 만난데다 그나마 제 페이스를 지키지못해 탈락했다. 기대를 걸었던 在日동포 車律은 세계챔피언 蘇聯의 스미로프에게 1승3패했고 趙在奉은 세계10위의 노바크(폴란드)에게 1승3패했으며 金憲秀는 4패를 당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 펜싱에는 세계랭킹 16위까지 모두 출전, 완전한 세계선수권대회의 수준을 보이고있다.

◇제2일전적

▲남자농구B조
한국 91─72 그리스
(1승) (1패)
미국 91─35 세네갈
(1승) (1패)

▲남자체조단체=①루마니아 173.50 ②미국 172.70 ③중공 171.70
▲동개인=①커트·스지리(루마니아) 57.95 ②유리·코로레프(소련) 57.95 ③아머·아코피안(소련) 57.85
▲남자배구B조
중공 3─0 이집트
(1승) (1패)

83년 世界卓球 女單서는 李壽子를 優勝후보로

日專門誌 예상

日本탁구계는 한국의 李壽子(19)를 오는 83년 도오교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식의 유력한 우승후보로 지목했다. 日本의 월간탁구지(7월호)는 지난4월 유고에 벌어진 제36회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단식준결승서 中共의 曹燕華에게 패해 3위를 차지한 李壽子가 2년후의 도오교대회서는 유력한 우승후보라고 전망하면서 유고서의 활약상을 크게 실었다. 이잡지는 세계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해 3위에 입상한 것은 꾸준히 연습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드라이브가 위력적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체력강화와 정신적인 강인성을 높이고 지도자들의 조언을 잘받아들인다면 훌륭한 선수가 될것이라고 했다.

李壽子 世卓서 4位올라

랭킹발표

한국여자탁구의 에이스 李壽子(제일모직)가 국제탁구연맹(ITTF)이 최근 발표한 81~82년 세계랭킹에서 4위로 올랐다. ITTF 서열위원회가 지난 6월22일에 확정, 20일 탁구협회에 알려온바에 의하면 한국은 李壽子외에 金庚子(제일모직)가 11위, 安海淑(동아건설)이 29위, 黃男淑(동아건설)이 38위에 올랐으며 남자선수로는 西獨에서 활약중인 朴利熙가 13위, 金浣(제일합섬)이 36위를 각각 마크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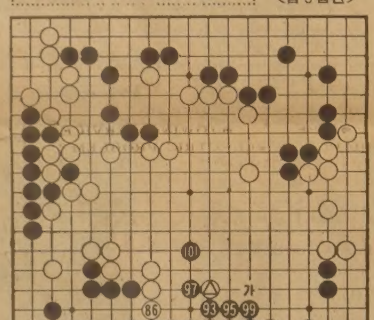
월드게임選手團 4種目46명결단

제1회 월드게임(24~8월2일, 美산타클라라)에 출전할 한국선수단 46명(임원12·선수34)이 21일밤 KAL편으로 장도에 올랐다. 한국은 야구·배드민턴·태권도·볼링등 4개종목에 출전한다.

第12期 名人戰 挑戰5番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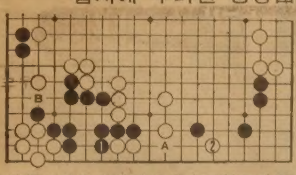
第3局 第6譜 86~101 (각5시간 덤5집반)

白(挑戰者) 徐奉洙〈1勝1敗〉
黑(名人) 曺薰鉉〈1勝1敗〉



본보에서 우선 눈에 띄는것은 黑101로서 중앙 白의 대세력이 여지없이 무너진 모습이다. 독자들은 아마 이같은 돌변사태에 눈을 의심할지 모른다. 사실 觀戰子도 설마 이런 변화가 일어날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되었는지 본보의 과정을 서둘러 살펴보기로 하자. 전보에서 지적했듯이 白이 중앙 30집가량 확보하면 무서운 계가바둑이다. 도전자도 물론 그것을 확인하고 있었겠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계가바둑보다 다소의 위험은 있더라도 속전속결로 일거에 판세를 결정짓고 싶었는지 갑자기 白86, 88로 아래쪽 黑을 공격했다. 어쩌면 86, 88은 그저 黑을 최한으로 괴롭히면서 그 삯에 중앙을 보다 크게 확보할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86으로 「가」에 뛰어 黑의 동정을 살피는 온전한 수법이 여기서는 가장 적당했다. 좌우간 공격을 받은 黑은 89이하로 계제에 △표들을 때고서 101까지 뛰어드는 일대교환을 연출했던 것이다.

삼시에 무너진 중앙白勢



도중 黑91로 참고도 1은 白2로 응수, 黑A로 하고 2로 타진 수를 B로 붙이면 白의 B의 일격으로 하변 黑이 약해진다. 【一凡】

『학술 情報銀行』세운다

서울大등 5개圖書館 유통協力

컴퓨터利用 온라인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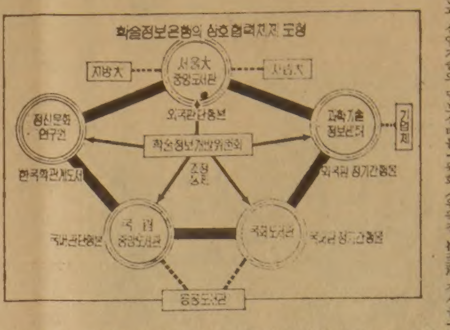
學界·企業등 資料難고통덜어

선진국 産業정보 신속수집

기능별로分配 상호 서비스

선진국의 학문과산업정보를 수집, 분배하는 기능을 맡을 『학술정보은행』이 우리나라에도 설립된다. 일반에게는 생소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동중인 이은행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선진국의 학문과 고도·정밀화하고있는 산업에관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국내도서관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시스팀을 구성해 상호분배하는 정보의 상호협력 유통체제를 갖추는것으로 학계와 산업계의 관계자들로 부터 큰기대를 받고있다.

21일 서울大관계자는 『서울大 중앙도서관등 국내5개도서관이 해외의 학술문헌 정기간행물 연구리포트등을 분야별로 도입, 전산처리에 의해 상호서비스하는 유통체제를 계획하고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실현되면 국내학문과 산업기술발전에 획기적인 파급효과를 거두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大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의 교수·기업체등 각종 학술도서 이용자들이 자료부족때문에겪는 고통은 심각했으며 이때문에 전반적인 학문과 산업기술의 낙후상태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요인이 돼왔다』고 지적하고 『학술정보은행 체제의 설립을위해 지난6월말 문교부 학술진흥재단산하에 학술정보개발위원회(위원장 崔至熙 전서울大 도서관장)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계획에 따르면 학술정보은행역할을 할 국내도서관및 기관은 서울大중앙도서관, 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정신문화연구원등 5개기관으로 돼있으며 ▲서울大도서관은 외국출판 단행본 ▲과학기술정보센터는 해외학술정기간행물 ▲국회도서관은 국내정기간행물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판 단행본 ▲정신문화연구원은 국내외의 한국학관계도서등으로 전담분야를 세분화하도록 돼있다.

이들 5개도서관은 또 그 성격상 서울大 중앙도서관이 각대학 도서관의 중심센터역할을 맡는한편 국립중앙도서관및 국회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중심센터로, 과학기술정보센터는 각기업체등의 정보공급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된다.

한편 각중심도서관및 하급도서관은 컴퓨터에의한 온라인 시스팀을 구성, 전국적인 협력망을 갖게되며 이용자는 자기가 속한 도서관에 정보제공요청만하면 즉각적으로 『어떤내용이, 어느나라의누가 언제쓴 문헌이 국내어느 도서관에 있다』는것까지 가르쳐주게된다.

이같은 정보유통체제를 위해 지난74년부터 과학기술정보제공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해온 과학기술정보센터등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특히 서울大의 경우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지난 70년부터 도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자테이프에 수록, 판매하기 시작한 기계가독목록(L·C·MARC)을 구입, 컴퓨터에 축적시킬 계획이다.

이와같이 정보은행이 구성되면 도서구입때에도 이용도가 높아 각도서관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본자료는 각기구입하되 이용도가 낮지만 반드시 필요한 전문자료(주변자료)는 출판지역·주제별로 나누어 구입하게 된다.

서울大관계자는 『이정보은행이 구성되면 도서의 이용자나 도서관측에서 도서의구입, 열람, 정리에드는 막대한 인건비와 시간및 번잡함을 피할수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의경우 지난50년대에 해군병기시험소에서 자체소유자료의 전산처리를 처음시도한이래 60년대초반에 실용화됐고 북구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등은 3국가간에도 이런체제가 갖추어져있다』고 밝혔다. 【金宗來기자】

◇미스·유니버스에 영예王冠
금년도 미스·유니버스의영광을차지한 베네수엘라의 이레네·사에즈·콘데(19)양이 작년도 미스·유니버스 숀·위덴리양(美國)으로부터 왕관을 물려받고있다【뉴욕21日AP=聯合】

81年度 미스유니버스에

베네수엘라 콘데孃뽑혀

【뉴욕21日AP=聯合】미스·베네수엘라인 이레네·사에즈·콘데양(19)이 20일밤 75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81년도 미스·유니버스의 왕관을 차지했다.

2위는 미스·캐나다 도미니크·뒤퍼양(22), 3위는 미스·스웨덴 에바·런그렌양(19)이 각각 차지했으며 미스·브라질 아드리아나·알베스·데·올리베이라양(18)과 미스·벨기에 도미니크·반·이쵸우트양(20)이 각각 4, 5위로 입선했다.

금발에 잿빛눈동자가 아름다운 올해의 미스·유니버스 콘데양은 카라카스의 메트로폴리탄대학 공학도로서 신장 5피트10(1·77m) 체중 1백31파운드(59kg)이다.

콘데양은 예선에서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로널드·레이건 美大통령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며 그 이유는 『그가 보편적 민주주의 이상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었다.

영예의 미스·유니버스 왕관을 차지한 콘데양은 부상으로 10이만달러상당의 상금과 각종 상품을 받게된다.

이날밤의 미스·유니버스 최종선발대회광경은 TV를 통해 전세계 6억 시청자들에게 방영됐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또 싸웠어"
"사장님 내외분께서는 카운슬링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결혼생활 카운슬러를 만나보시면 골칫거리를 어떻게 꾸어나갈 지 그방법을 가르쳐 드릴겁니다"

"내 문제들이야 내가 끌어나갈수 있다네"

"내가 어쩔수 없는건 마누라란 말일세"

外務部百25명人事

副理官15명등 國內外교류

외무부는 21일 副理事官15명을 포함한 외교관 1백25명에 대한 國內外 交流人事를 단행했다. 年例 정기교류의 일환으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 따라 본부 근무중이던 39명의 외교관이 在外공관으로,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36명이 본부로, 그리고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43명의 외교관이 다른 재외공관으로 轉補됐다.

이번 人事대상자를 職級別로 보면 ▲副이사관 15명 ▲서기관 46명 ▲사무관 38명 ▲主事24명 ▲主事補 2명이며 직급별로는 외교직 90명, 행정직 6명, 外信職 29명이다.

張吉山 (1613)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73)

『상권의 판도가 바뀐다는 것은 장사판만이 아니라, 우리힘의 내실이 단단해진다는 얘기요. 이렇게되면 무과를거친 부관 가운데, 출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자들을 금력으로 뒤를 대어 벼슬하게 하기도, 수사까지만 올려 놓아도, 그 지역의 비변은 보두 우리 군사가되는게요. 까짓, 수년 안에 처사 병사 진장 선전관까지 엘명을은 쉬어 놓을 수가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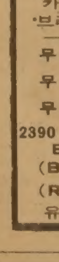
『인삼의 무역은 국가에서 금단철목으로 못하게 하고 있으니, 잠상을 해야 되겠군』

그들이 얘기하는 중에 쌍열스님이 오진암에 오른다는 전갈이 있어서, 그들도 서둘러 곽짜기를 올라갔다. 오전 암의 법당에는 승속이 모두 열세명 모여 앉았다. 자비령 쪽에서 장길산, 김기, 강선흥이 왔고, 기순에서 여환, 이경순, 서태로부터 우대용이 왔으며, 해주에서 승려요정, 송도에서 박대근, 그리고 금강산의 운부 환스님이 보냈던 승려 성반주와 유학 선유징, 구월산에서는 승려 옥여와 쌍열대사, 마지막으로 신천의 마수 오계손이 그 진부였다. 묘향산에서 승려 도안이 오기로 되었으나 아직 당도하지 않고 있었다. 제각기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인사가 끝나고나서 쌍열대사가 입을 열었다.

『일찌기 수년전에 금강산에서 몇몇 뜻있는 승려들이 모여서, 아조의 도를 잃은 정치와 내승아치들의 탐학에 관하여 탄식하고 백성들의 참상을 그치게하는 방도를 논의한적이있었소. 그때로부터 승난 내에 주상같은 기운이 일어나 : 많은 젊은 수도자들이, 뜻을 모아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 어러곳에서 백성들의 뜻을 위하여 환을 당하고 난을 격기도 하면서 이같은 흐름에 합류하여 온 속인들도 많았소. 물론 승단 자체의 뜻은 아니지만, 훈뭉한 벗사가 되어 불도를 다음 세상으로 전해야할 짐을 지니고있는 승려가 있는가하면, 그러한 도가 널리 퍼져 시행될 터전을 마련해야할 승려들도있는 것이외다. 우리들은 출가한 사문으로서 세간에서 행하여지는 일에 관여없이 산간에 들어앉아 고요히 득수도하고 있을 수 만은 없게 되었소. 나라는 오랑캐의 속국이 되었으며 자고로 그 소대를 세워 스스로 떳떳한 자주의 나라임을 밝힌 적이 한번도 없었소. 또한 사대부는 제혈족과 파벌의 이익만 도모하면서 진창의 개처럼 나뒤어 백성의 곤궁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배전하였소. 글을 배운다는 자들이 사람이 되어 남을 돕겠다고 학문을 하는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과거를 하고 한로로 출출 잡아 입신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아 넘까하는 탐심으로 가득차 있소. 지난 수년간의 용할로 전모는 피폐하고 역병이 돌아 수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으니, 조정에서는 서로 니주어 쥐꼬리만한 허울만의 명분으로 파리잡듯 서로죽어대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판이요. 실로 이런 지경에 이르러 조정을 바꾸자는자가 나온다 한들, 그것은 사람반이 바뀔뿐 새로운 임금을 올린한 자들은 공신훈작이 되어 더욱 못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요. 방정도 그렇거니와 입국이란 도대체 무엇이요. 군사를 가진 강자가 나타나면 실세하여 낙백의 시절을 보내던 양반, 음모가들이 그에 붙어서 헌정권을 물아내고는, 나라를 송두리째 중국에 들어 바치고는 천자의 윤허가 내리면 그제사 국본을 다진듯 이 안심을 하오. 몇몇 고결한 선비나 맑은 마음을 가진 지사가 있어 가날픈 주먹을 부르쥐고 글을 쓰거나 대들어 보기로하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가나안 카텐
카─텐·카펫
·브라인드·카바
무 료→견 적
무 료→I 레루
무 료→공 사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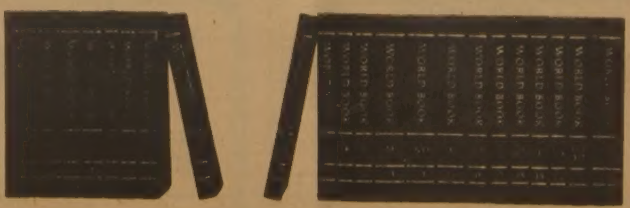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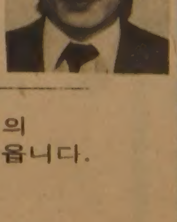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533-2363 (9시~4시) 769-4366(저녁7시이후)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30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 - 30 달러
☎ : 532-3637 미스타 게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
좋은 농장에서 아주 좋은 대우 해 드립니다.
4 계절 계속 있읍니다.
☎ : 465-9929 CALL GEORGE
C & L LIVE BAIT CO.

남녀 초저녁 청소하실분
☎ : 977-1110

입주하셔서 애기 돌 봐 주실분
☎ : 425-6216
미세스 전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 풀타임 구함 :
하루10시간 근무, BAY + BLOOR지역
☎ : 968-9221

풀타임으로 그로서리 가게에서 일할
신체건강한 사람 구함
☎ : 690-6572

경험있는 재봉사 & 미싱기술자 구함 :
냉방장치및 식당 구비되어 있음
CO-ORDINATION DRESS LIMITED.
49 SPADINA AVE. 4th FLOOR
☎ : 367-1414

RECEPTIONIST FOR DENTAL OFFICE
EXPERIENCED PREFERRED BUT NOT NECESSARY, MUST BE FLUENT IN ENGLISH & KOREAN.
☎ : 781-9591, 535-2798

①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우대 좋은장소
1000마리당 $35
②여름철 낚시미끼용 미모사, 지렁이 거머리등 세일.
LIGHTS밧데리

A & A METRO BAIT SHOP
630 QUEEN ST. E. (Queen × Broadview)
☎ : 463-4997

VENDING TECHNICIAN
Repair & maintain all types of Vending equipment, food service equipment etc.
Ability to read & understand electrical diagram essential.
Car necessary.
5years practical experience or equivalent in the field.
CNIB
☎ : 486-2570

매매및 양도

포터블 켄·모어 세탁기 2년 사용
포터블 뷰맥 드라이어 6개월 사용
☎ : 497-9180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 + 로타리오
☎ : 783-1984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1801 LAWRENCE AVE. E.
SCARB.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SET UP하실분
렌트 $350, 리스6년+6년 옵션
☎ : 461-9236 JACK PONG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교통이 편리한곳에 위치한 주택매매및 전세 :
Lakeshore & Royal York Rd.근처 Central Aircon., 4 Rms, Rec. Rm. ☎ : 255-6849, 368-9018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 × 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FIRE PIT햄버거 식당
주매상 8천불~만불, 가격27만불, 리스20년,
렌트 천7백불 현찰13만불 요함. 순이익8천불
☎ : 1-705-748-9722 피터보로
미스타 김 또는 미스타 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59,900, 주매상 $5,600, 렌트 $1,100
리스4년+5년 옵션가능함 ☎ : 1-579-4507(WHITBY)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1801 LAWRENCE AVE. E.
SCARB.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 781-7080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가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 622-7162 미스타 리

고급 BEDROOM SET급매 :
경대, 옷장, 2 NIGHT테블(QUEEN SIZE) 침대.
G. E. 냉장고, 커텐, 전축등 급매
☎ : 769-4366(오후5시이후)

아파트단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4000, 리스 5년
☎ : 921-0034, 783-6464(오전10시~오후6시)

CONVENIANCE STORE IN BUSY PLAZA
(ST. CLAIR E. X 버치마운트)
ASKING $69,000, 리스8년6개월, 주매상 6,500이상
HELLENIC REALTY
☎ : 766-2020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여권 분실

"여권분실"
교포 여권 분실을 공고합니다.
성명 : 나 복 희 연락처 : 698-6415

"여권분실" : FINCH × BATHURST 아파트 안에서 분실하였기 공고합니다.
☎ : 630-2450 조 영 주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국일보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미 용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월·일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627

로마노 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식 당

KOREA HOUSE
＊죽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TEL. 536-8666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은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 929-5048, 961-3539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 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80, B) 783-0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칠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벤 토 리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 근무중
● Book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 - 6802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INIT TUNE : 주정부 지정 차량검사장
①TUNE UP, ②BRAKE검사무료, ③각종차수리일체
☎ : 782-6311 이 태 경(793 Spadina Rd. at Eglinton)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식 품 점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꽃꽂이, 생일,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헌 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타일 ● 하드우드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439-6277 박 (스트리핑 & 왁스)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536-7875

기 타

변호사 개업(黄永興 律師)
WING H WONG
BARRISTER & SOLICITOR TRADE MARK AGENT
OFFICE : SUITE 214, 4455 Sheppard Ave. E. (at Brimley)
Scarborough Ont. Tel 298-6767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코스모스

숙녀복(SIZE 5-16)
아동복(신생아-16)
항상 저렴한 가격
월~토(오전10시~7시) 일(오후3시~7시)
706 BLOOR ST. W. ☎ : 534-2003

Can 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구 혼

구 혼
26세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남자로 알뜰한 신부를 찾고 있읍니다.
☎ : 1-387-2327 미스타 김

—수 상—

안 전 통 로

유 인 형 (문협회원)

◇유인형 씨

서류, 서류, 서류뭉치…

요건 요렇고 저건 저러니까 이건 이렇다. 이리가서도 안되고, 저리가면 더욱 안된다. 가긴가야 하니까 요리저리 잘 피해야한다.

어느곳에도 함정과 제한된법이 도사리고 있다. 변호사는 사업분석도 조언해주면서 법을 유리하게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도대체 개알같은 글씨로 새까맣게 써놓은 조건을 알수가 없다. 눈을 아무리 똑바로 뜨고봐도 하얀것은 백지이고 까만것은 조목조목 쳐놓은 그물이니 이거 답답해 견딜수가 있는가.

자칫 싸인을 잘못 했다간 몇년간 중노동으로 모아놓은 피땀어린 밑천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처럼 가슴아픈일이 또 어디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놈은 노동자를 사기하는 족속들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안전통로를 찾을까.

작전지역에선 병력의 안전통로를 위하여 공병들이 투입된다. 야전공병은 지뢰제거의 전문가 들이다. 지뢰제거를 위하여 필사적인 사투를 해야한다.

때로는 TNT의 폭파로통로를 만들어 나가기도하고 특수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시간과 여건에따라알맞는 방법을쓰고있다. 야간안전통행을 위하여선 야광표시나 안전병이 인도하기도 한다.

자, 우리들은 생소한 환경과 법적인 조건이 다양한곳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안전통로를 만들고 있을까.

지뢰의 뇌관은 건드리면 터지게 되어있다. 어떻게 하면 교포간의 안전통로와, 우리들 후손들의 안전통로를 만들어줄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의 질서이다.

질서란 자연적인것과 규범적인 질서로 나눈다. 규범의 질서를 서로 지킬때에 안전통로가 설정된다.

교포와 교포간에 깊은믿음 없이는 모든게 불가능해진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과 타인을 똑같이 인정하는 자세에서 안전통로가 만들어 진다.

이곳은 지뢰지대와 같은 곳이다. 무작정 고삐 풀린 망아지들모양 이리뛰고 저리뛰다간 자기도 다치고타인도 피해를보게 된다. 역시 안전통로를 위해선 바보가 되어야할 때가있다. 너무 계산에만 밝다보면 세상이 불편해지고 거추장스러워 진다.

사촌이 땅을사도 배가아픈 소아병같은 시기심으로는 밑바닥만 치우다가 끝장이 날수밖에 없다. 터무니없는 권리금이나 조작하고있는 복덕방은 안전통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권총강도가 나흘이 멀다하고 뛰어 들어오는 가게를 또 다른 교포에게 넘기는 친구도 그렇다. 얌체모양 옆에 기어들어와 값내리기 경쟁이나 하자는 심리는 또 어떠가. 안전통로란 서로 살아남자는 길인것이다. 같이사는길을 모색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않는가 우선 급한대로 삶아남았으니 이제부턴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중론을 모아야 한다. 일확천금의벼락부자만 쫓다가 허망한 구렁텅에 빠지지 말고, 한발자국, 두발자국 다져나가는 안전제일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각계각층의 관찰과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널리 알려야할 시점에 와 있다. 한때의 감정이나 즉흥적인 기분으로 중대한일을 결정하지 말고, 언제나 교포의 안전과 유리한면을먼저 검토하는데에 안전통로가 열리게 된다.

답답하게도 교회다음에 늘어나는건 신문인데,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경험 과 저력을 널리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같이 살려 하지않고 혼자 사는 길만 찾는다. 우리들은이곳에 각 교파간의 교리를 연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정치훈련을 받으러 온것도 아니다. 사사건건 정부의 비난이나 일삼는 신문도피로하고, 평양의 대변인같은 신문도 역겹다.

먼곳을 바라보며 화목하고 느슨한 분위기로 유도하면서 안전통로를 모색해주는 대화의 광장이 필요한 것이다. 복잡한 여건일수록 서로 신뢰하고, 질서있게 움직일수있는 심리적인 안전통로란 없는 것인가.

머무르고 숨쉬는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낳아준 모체에 침뱉지 않으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려는 기본적인 대화의 통로를 스스로 만들어야 할 때 이다. 남의 역사와 문화만 좋다고 정신나간짓을 하기전에 우리의 것부터 바로깨닫고 일어서는 방향으로 교회와 신문은 앞장을 서줘야 한다.

그러한 종교와 언론만이 살아남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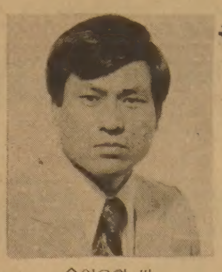
개인의 이익과 이용가치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면무엇운보고 문화민족 이라고 하는가. 메뚜기가 콩깍지위에 올라서서 하늘이 낮아졌다고 소란을 피운다고 한다. 과시하려드는 시끄러움이 지나치다. 교포사회가 요란스럽다. 붉은신호등 앞에선 어김없이 정차하는 저 안전규범모양교포의 유리한 모든것에 우선 협동하는 자세만이 서로 성장하는 길이다.

안전통로는 바로 문화의 척도가 된다.

〈건강생활 시리즈〉

건강의 비결 ④

[illegible]약국 이 요 한



◇이요한 씨

6. 암의 발생은 방지할수 있나.

10년 전만해도 암은 심장마비 다음으로 무서운병이었으나 이제는 제 3위로 됐어도 아직 특효약은 없고, 다만 방사선이나 화학요법 수술등으로 치료하고 있다. 많은사람이 연구하고있으니 속히 특효약이나와주길 바랄 뿐이다.

테리팍스가 사용한 인터페론(Interferon)이란 아직도 연구단계여서 일반시민이 사용할수 있게끔 보편화되지 않았다. 온타리오에서 아직 이를 제조하지 못하고 B·C에서 먼저 테리팍스 재단에서 생산할계획으로 있다.

암은 아직 치료가 곤란한 병이므로 최선의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수 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많은 암의 발생원인을 찾아낼수 있다고 했다. 공기의 오염, 음료수의 오염, 각종 가공식품의 원인도 있으나 우리의 각자 식생활 방식도 문제가 된다. 많은 화학약품이 원인이되고, Tar· 담배연기도암을 유발한다. 종종 직장에서 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수도 있으나 대다수는 직업과 관련없이 발생한다.

1930년 전에는 폐암이란것이 드문 병이었으나 지금은 암 발생의 20%가 폐암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공기의 오염이나 아니면 흡연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많은여성이 흡연을 하니 여성들의 폐암도 상당수로 늘어나리라고 보고있다.

앞에서 흡연이 심장마비의 한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흡연이 또한 방광암이나 췌장암의 원인이 된다. 흡연이 왜 심상병과 암의 원인이 되는지는 자세히모른다. 다행히도 담배에 필터(Filter)가 생겨서 실제로 흡연하는 Tar의 양은많이 줄었다. Tar의 양이 적은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만큼 위험성이 줄어든다.

또 한가지 알려진 사실은 동물성 지방질이 심장에좋지 않다는것은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또한 암에도 좋지않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동물성 지방질을 많이먹는 사람이 암에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이다. 북미에서 가장많은 암은 남자의 경우 폐암, 대상암, 직장암, 전립선암(섭호선암)이고, 여성의 경우는대장암, 직장암, 유암이다. 동양인 에게는 여성의 유방암이 적고, 멕시코 인에게는 대장이나 직장암이적은데, 이는 섭취하는 지방질의 양에 관계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질을 적게먹는 국민이 지방질을 많이먹는 북미로 이민을가면 암발생이 증가한다는것이다. (계속)

〈독자의 글〉

잃은 자의 합장

— 고 이종묵씨 기일에 —

이 명 숙

◇이명숙씨

■작년7월20일 38세의 나이로 사망한 전 쎄알학교 댄스교사 이종묵씨의 1주기를 맞아 미망인 이명숙씨는 다음과 같이 현재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여사는 그후 재혼했다. 서울드라마·센타 탈렌트 1기생인 이종묵씨는 온타리오 글렌·벤·비치에서 수영중 심장마비로 익사했다. ■

삶의 지표를 잃어버린지 어언 일년.

이제 명하게 조금씩 피부로느끼는 그이가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이상 부인할 자신이 없다.

차원이 다른 전위의 삶을 구사하던 언젠가 부터 이세상의 현실을 초월했던 그 사람—

그렇게도 급하게 저 세계를 향해 줄달음쳐야 했을까?

함께 묻어버린 과거의 모든 영상들……

오늘도 그이의 무덤 앞에 쭈그리고 앉아 생의 푸념을 생전처럼 늘어놓으며 통곡해본다.

한푼의 이익이 없이는 그 흔해빠진 동정도 아껴려고 하는 속물들 속에 알면서도 값싼 동정을 구하는 나라는 또하나의 속물. 대화의 광장이 없으면 질식할 것같은 나라는 존재.

누군가가 들어줘야 하는 나만이 싸 안고 있는 보물같은 슬픔과 고독이 함께 밀어닥칠 때면 어서 빨리 삶을 초월해야 된다는 초조감.

누군가가 아픈 내 가슴을 쓸어줘야 했던 사실 때문에 또하나의 삶을 창조했던 나. 나에게도 무던히도 누군가가 있어야만 했었다. 나의 모든 멍든가슴을 달래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벗.

가신 그이처럼 조금은 다른 세계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어리석음 — 이제는 그 벗도 지쳐 버렸단다.

"왜 무엇 때문에 나까지 아파야 하나"고.

그래도 삶의 포물선을 그려가며 하루하루 굴러가는 가냘픈 나날들이 허공의 줄타기처럼 위험을 간직한채 오늘도 멈출수 없는 세월을 탓한다.

남들의 무서운 시선속에 지쳐버린 벗과 함께 조그만 생개울물이지만 바위에 부딪치지 않고 넓고 넓은 바다에 도달하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나가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 : 28～29).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그이의 무덤 앞에 잃은 자의 슬픔을 달래려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사는 길은 이길 밖에 없노라고 고하며 주님의 품안에서 평안히 쉬어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합장한다

1981년 7월20일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안식

YMCA여름학교 제3,4학기 학생모집

여름은 어린이들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며 보람있고 성장하는 계절이어야 합니다. 한국어린이들이 한국친구를 사귀고 추억에 남는 여름방학이 되게하기위해 YMCA에서는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Day Camp스타일의 여름학교를 가집니다. 늦기전에 신청하십시오.

교사진 : 김진수, 에스터·김, 김정숙, 조인숙, 이정희, 권혁길, 이진화, 김창렬, 정호영, 정미선, 김영훈.

※스쿨버스가 2대, 동부, 서부(스카보로와 미시사가 일부포함)

※금요일마다 여행이나 피크닠을 가짐.

때 : ＊제3학기 : 7월27일～8월7일

＊제4학기 : 8월10일～8월21일

장 소 : WINONA고등학교(101 Winona Dr.) (St. Clair×크리스티 부근)

과 목 : 한글·무용·피아노·바이올린·미술·수영·태권도·노래·여행·짐네스틱(피아노와 바이올린은 개인지도)

등록금 : 1학기 50달러(2인이상은 할인). 버스비 별도

토론토YMCA

15 ROBINA AVE. 536—1166